
 인천광역시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2월 17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관광마이스과	담당자	• 마이스유치팀장 전희정 ☎440-1501 • 담당자 이지은, 최요한 ☎440-1502, 150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상반기 포상관광단체 2천여명 인천 찾는다

- 대만·태국 등서 6월까지 순차 방문 ... 경원재, 전등사, 현대유람선 등 관광 -

- 다양한 유니크베뉴, 단체별 맞춤형 투어 코스 개발 등 성과 결실 -

코로나19 일상회복과 함께 대규모 포상관광 단체들이 인천으로 향하면서, 인천의 관광과 마이스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오는 6월까지 대만·태국에서 오는 포상관광단체 약 2천여명이 인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19일부터는 대만 글로벌 자동차회사 임직원 350명이 10여 차례로 나눠 인천을 방문한다. 이들은 송도 경원재 호텔(5성급)에서 숙박을 하고, 강화에 위치한 막걸리 체험장인 금풍양조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어 6월에는 대만의 건강식품 회사 임직원 400여명이 인천의 유니크 베뉴¹⁾ (특색있는 마이스 행사 개최지)인 인천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현대유람선을 활용해 자체 행사를 개최 할 예정이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의 태국의 글로벌 마케팅 회사 및 식료품 회사 임직원 약 1,300여명이 순차적으로 인천을 방문한다. 이들은 3박 4일 전 일정동안 인천의 호텔에서 숙박하고, 월미바다열차, 강화 전등사 등 인천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관광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와 공사는 지난해부터 인천의 유니크베뉴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마이스 행사 개최지를 발굴하고, 방문 단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적극 홍보, 올 초부터 여러 포상관광 단체를 인천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새로운 마이스 트렌드에 발 맞춰 마이스 인프라를 다각화하고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마이스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이 필요하다” 며, “인천의 독특한 유니크 베뉴를 적극 발굴해 다양한 마이스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할 계획이며, 이러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포상관광 단체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참고 > 관련사진

1)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과 같이 기존의 전통적 마이스시설이 아닌, 마이스 개최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과 시설을 포함하는 장소



현대유람선 만찬행사



현대유람선 야외사진